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선정

대강당·세미나실·무장에 데크길·편백 나무 이용 숙박시설·야영장 등 갖춰 높은 점수



보성군은 지난 9일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전라남도 유니크베뉴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유니크베뉴는 도시의 고유한 컨셉이나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전문시설이 아니라도 마이

스(MICE) 등 행사 개최가 가능한 시설 또는 장소이다.

전라남도는 마이스(MICE)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전라남도 유니크베뉴' 선정·발표했다.

보성군은 이번 유니크베뉴 선정으로 마이스(MICE) 기관·단체의 중·소규모 회의 시 전라남도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유니크베뉴 인증서 수여 및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활용, 웰니스 체험 운영, 마이스(MICE) 인센티브 가산 혜택, 전시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2023 코리아 유니크베뉴' 후보에도 오르게 된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무대와 빈프로젝터 등을 갖춘 대강당과 세미나실, 무장에 데크길, 편백 나무를 이용한 숙박시설, 야영장(51개소) 등을 갖추고 있어 높은 점수를 얻

었다.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과 에코어드벤처, 쥘라인, 곰썰매 등의 체험 프로그램, 잔디광장, 족구장, 4년 연속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전남환경성질환경관리센터가 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자연생태 관광자원이 풍부한 유니크 베뉴로 숙박·관광·휴양, 체험 프로그램 등이 연관 시설들과 시너지를 이루고 있어 마이스(MICE) 산업 발전 가능성이 아주 큰 곳이다"라며 "제암산자연휴양림의 강점을 살려 중·소규모 마이스(MICE) 산업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암산자연휴양림은 2019년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코리아 유니크 베뉴'에 선정됐으며 2018년에는 '한국관광의 별'에 수상한 바가 있다.

보성=김택순 기자



광양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실시

다양한 교육으로 아동 권리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

광양시는 굿네이버스 전남지부, 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부와 함께 지역 내 아동과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긍정적 훈육과 아동에 대한 인식 변화, 아동권리 기본교육,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등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권리교육은 신청기관에 강사를 파견해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57회에 걸쳐 8300여 명이 아동권리교육을 이수했다. 올해 교육은 3월에 대상을 확정해 오는 4월

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 기관 및 단체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과 단체는 광양시청 홈페이지(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복지정보' → '아동복지' → '아동친화도시 광양' → '알림마당')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승택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앞으로도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 기자

순천시, 그린카본 정원으로 탄소 Zero 도시 실현



순천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근 컬럼비아기후대학원 산하 '지구관측소' 연구팀에서 도심 내 자투리땅의 작은 초목류들이 한여름 오후에 도심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40%까지 흡수한다고 발표했다. 자투리 정원, 잔디, 지피식물 등이 도시의 탄소흡수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순천국가정원을 도심 곳곳으로 연결하여 시 전역을 탄소흡수원인 그린카본 정원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탄소흡수원과 저장원의 보전·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특히 매년 도시의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는 등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실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자연기반 해법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정주도시 순천은 인근 여수와 광양처럼 제조업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과는 결이 다른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생물 서식지 감소, 멸종위기 개체 수 감소 등 생태환경이 심각해지므로 순천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도록 그린카본(정원)과 블루카본(수변갯벌) 등 도심 곳곳의 녹지화와 생태계 복원 등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순천시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순천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41만 톤이다. 2030년까지 40%에 해당하는 96만 톤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순천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년저감장치(DPF) 부착 지원 사업,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 우수 녹색아파트 선정 및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Zero 일류 순천

가장 내 에너지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기존의 탄소포인트제도와 함께 일상에서 실천가능한 사소한 친환경 행동만으로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를 실시한다.

또한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쓰레기 다이어트 등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 다짐 선언식으로 탄소중립 이행사회로의 분위기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여수시, 관광취약계층 '행복여행활동' 지원 추진

인당 15만 원 여행상품 지원...저소득·장애인 관광향유권 증진·관광 활성화

여수시가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전남 행복여행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사업은 여행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인의 관광향유권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시는 관광취약계층에 인당 15만 원 이내의 당일 여행상품을 지원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거주 만 6세 이상 관광취약계층으로 1005명(저소득층 881, 장애인 124)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2일까지 여행상품을 공모하고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며 5월부터 11월 말까지 여행상품을 운영한다.

여행상품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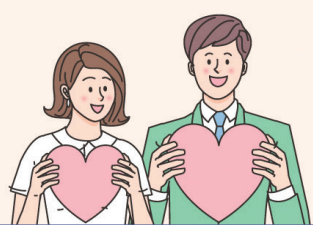
시 소재 여행업 등록업체 중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한 여행사로 여수시청 관광과(여수시 신월로648, 2층)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이나 이메일(dakeem@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맞춤형 여행상품 제공을 위해 장애인 상품 2개와 저소득층 상품 4개, 모두 6개의 상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여수시 관광과(☎ 061-659-38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관광여행이 누군가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며 "그동안 여러 여건으로 관광활동이 힘들었던 시민들이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내 삶이 행복한 광산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